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원사들 (1)

일본의 방적 업계 내에서는 “모든 섬유 제품은 원사로부터 시작”이라는 의식을 갖고 새로운 실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고 방식이 점차 관련 업계로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 제직 업체, 편성 업체, 원단 판매상, 어패럴 메이커 등 모든 분야에서 실부터 배려하는 신상품을 개발해 달라는 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방적 기업들은 각기 원사부터 머리를 짜서 개발하게 되어, 근래에 와서 원사가 더욱 다양화하고 있다.

일본의 방적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다. 이제까지 방적이 불가능하다고 하던 원료로 일본의 방적 기술자들이 과감하게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실을 만들어 내고 있다.

2004년에도 구라보나 후지보가 대나무 그 자체의 섬유로 실을 개발하여 항간에 소문이 자자하였다. 시키보도 신나이가이멘과 협력하여 사탕수수 섬유를 방적하는 데 성공하여, 이 실로 만든 옷을 판매하고 있다. 닛신보의 바나나 섬유, 선랜드의 골풀(등심초)로 뽑은 실들은 모두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오직 불굴의 일본의 우수한 방적 기술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일본에서는 방적 업계 밖의 사람들이 기계만 있다면 어디서나 방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머지않아 일본의 방적업은 개발 도상국에 밀려 없어지고 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실은 기계가 뽑는 것이므로, 사람, 즉 기술자는 별것 아니고 노무 관리만 잘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확실히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하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는 계속 최신 시설을 도입하고 있다. 유럽의 방

적기 메이커도 일본의 섬유 시장이 더욱 확대하리라고 바랄 수 없다고 하여 일본의 섬유 산업에 대한 영업도 소극적이다. 이 때문에 해외의 최신 시설과 일본의 노후 시설과의 성능 차이는 커질 뿐이다.

그러나 최신 방적기를 도입하기만 하면 훌륭하면서, 차별화된 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혼면, 카드, 코머, 연조, 조방, 정방 등의 각 공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고, 기술을 발휘함으로써 마침내 개성이 빛나는 원사가 만들어진다. 그러한 정교한 기술의 축적은 불과 몇 해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아니, 이런 근사한 실도 있나”라고 무의식 중에 감탄하게 만드는, 기업마다의 개성이 돋보이는 원사들을 방적사별로 소개한다.♣